

-성찬식에 대하여- 김진미목사

마지막 만찬 때의 주님의 심정과 성찬식의 의미

성찬식을 앞두고 계속 성찬식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던 중 주님께서 성찬식에 대해 저녁에 말씀해 주셔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부분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날 새벽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울며 기도 하던 중 다시 성찬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너에게 성찬식에 대해 말하련다.

성찬식을 말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내 사랑을 알아야 한다.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사랑의 역사, 온전한 신부의 역사 이루기를 원하셨다.

2000년 전 나를 보내심도 아담, 하와 통해 사랑의 역사 이루지 못함으로 그 온전한 신부의 역사 이루고자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무나 귀한 사랑의 역사였다.

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역사 이루려 하였다.

종 된 자들을 신부가 되게 깨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통해 그들을 사랑으로 깨우고자했다.

아낌없이 내 사랑을 주었고 내 마음을 주었노라.

미련없이 후회없이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랑의 역사 온전히 이루기도 전에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는 죽음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어느 누구하나 깨어 나를 사랑으로 맞는 자 없었다.

온전한 복음의 역사 이루려 하였으나, 말씀으로 너희를 진정 변화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나의 죽음으로 너희 죄를 담당하여 갈 수 밖에 없는 눈물의 역사 되었구나!

나는 결코 죽음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았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상 나는 내 목숨을 건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였기로 내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껏 너희를 사랑하고 싶었고, 내 마음껏 너희에게 내 마음을 주고 싶었고, 내 마음껏 창세의 비밀과 하늘 아버지의 비밀과 영계의 비밀, 그 사랑의 비밀을 너희에게 마음껏 풀어 놓고 싶었다. 내 마음껏 너희를 사랑하고 싶었고, 내 마음껏 너희 사랑을 받기를 원하였다.

진정 4000년간 이루지 못한 사랑의 역사 이루려 하였다.

진정 내 하늘 아버지의 소망을 이뤄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결국 육의 세계에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그 사랑의 역사 이루지 못한 채 너희 목숨하나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구나!

구원은 기본이요... 근본은 사랑의 역사 이루고자 함이었다.

사랑으로 온전한 구원 역사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너희 생명을 살리는 기본적인 구원의 역사 밖에는 이루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내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내 마음, 내 사랑을 다 쏟아 부었는데...

진정 신랑으로서 너희를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의 뜻 이루지도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역시나 짝사랑으로 끝나 버리는 역사가 되는 것인가?

구약 4000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외로움을.. 그 사랑의 상처를 지워드리고자 하였는데...

또다시 사랑의 뜻 이루지 못한 채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구나!또다시 한스러운 눈물의 역사, 외로움의 역사가 되었구나!

어린 신부들, 내 사랑을 주고받기에는 너희 너무 어린 신부들이었다. 내 사랑의 표현을 알지 못 하는 어린 신부들!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보지도 못한 채 나는 떠나야 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주체 할 수 없는 이 슬픔, 그것 감추느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내 어린 신부들... 그들에게 나 무슨 말을 하리요.

나는 내 사랑을 말하고 싶었다.

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싶었다.

너희를 진정 사랑한다고...

너희를 진정 품에 안아 살고 싶다고...

4000년의 그 역사 너희의 사랑을 갈망하며 기다렸다고...

아담,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사랑의 역사 너희 통해 이루고 싶었노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신부는 너무 준비되지 않은 어린 신부였다.

사랑을 아직 말할 수 없는 어린 신부!

가슴에 그 사랑을 묻은 채 이제 떠나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그들과 함께 하였다.

슬픔을 고통을 가슴에 품은 채...

육으로는 다시 못 볼 그들에게 하나하나 입을 열어 말하였다.

그들이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나는 신랑으로서 그들을 사랑하였기에.. 내 사랑 다 쏟아 그들을 사랑하였기에..

그들과의 헤어짐은 너무나 고통이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해 말씀하심.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느껴지느냐?

너무 사랑하였기로.. 내 마음, 내 사랑 모두 주었기로..

그들과의 헤어짐은 고통이었다.

내 가슴 한 편을 도려내는 고통이었다.

찟어지는 그 고통을 너희는 알까?

육으로 다시 볼 수 없는 그 고통, 그 슬픔을 알겠느냐?

정말 사랑하였다.

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었으나 정녕 고통이었구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내 찢어지는 심정을 가슴에 묻은 채 그들에게 말하였노라.
내 사랑을 잊을까. 내 이 간절한 사랑을 잊을까.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며 나를 기억하라 하였다. 육으로 함께 할 수 없으나 늘 함께 함을 알게 해 주고 싶었다.

사랑하였기에 내가 너희에게 왔고,
사랑하였기에 너희에게 비밀 된 말을 하였고,
사랑하였기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사랑 하였기에 다시 오겠다 약속 한 것이다.
진정 사랑하였기에...

지금도 나는 편히 있을 수 없구나.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에 한시도 편히 쉴 수가 없구나.
내가 손길을 주면 살아 날 수 있을까?
내 살점과 같고 내 피와 같은 너희를 살릴 수 있을까?
너희를 정녕 살리고 싶다.
이 지구촌을 정녕 살리고 싶구나.

내가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찬식의 의미를 아느냐?
핵심은 사랑이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여 내 어린 신부들에게 내 살과 피를 나누며 내 이 사랑을 기억하라 함이었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함도 사랑하기에 너희에게 말한 내 언약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사랑으로 준비하라.
2000년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사랑을 쏟아 부었듯이 이제는 장성한 내 신부들에게 내 사랑을 쏟아 부어 줄테니, 내 마음과 내 심정을 쏟아 부어 줄테니 너희는 정결히 준비하고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하고 예비하여라.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떡과 포도주는 내 살이요, 내 피요, 내 사랑이요, 나와 일체되길 원하는 내 마음이다.
너희가 진정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진정으로 내 사랑으로 일체되길 원하고 육신 없는 내 서러움을 알고 내 육신 되어 살아다오.
나를 대신하여, 너희 선생을 대신하여 온전히 나와 사랑으로 일체되어 제발 내 육신 되어 살아다오.
그리고 너희에게 주는 보혜사 성령!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거듭 날 수 있고 온전한 내 육체 되어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약속한대로 곧 올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정결함으로, 사랑으로 먼저 나를 맞으라.
6000년 이루지 못한 사랑 이제는 이루자.
태초부터 계획하신 사랑의 뜻, 신부의 역사 꼭 이루자.
내가 너희를 뜨겁게 끌어안을 수 있게, 빨리 성장하고 거듭나길 소망한다.

내가 뜨겁게 사랑함을 깨닫고, 성찬식을 온전히 준비하라.
먼저 정결히 하고, 세상 육적인 세계를 절제하고, 오직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집중하고, 내 사랑에 깨어 준비하고, 신부된 모습으로 준비하여라.

신부된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먼저는 깨끗이 하고, 내 속 깊은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내 마음, 내 심정과 맞추고, 내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여라.

기도로 준비하라.

오직 내 생각하며 준비하라.

내 사랑에, 내 마음에 집중하라.

너희만큼은 내 심정, 내 마음, 내 사랑 알고 성찬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성장한 신부들이니 내 마음 내 아픔 위로해 주는 성찬식이 되길 원한다.

또한 내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위로해 드리는 성찬식이 되길 원한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뜨거운지 깨닫는 성찬식이 되길 원한다.

뜨거운 사랑으로 만나자.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섭리의 신부들아!

-너희의 신랑 예수니라